

Cover Story
〈힐링유〉 새 MC 정태우, 이성혜

CGN Story 2013 발자취

CGN Special
크리스천의 자기표현과 호감의 법칙

Special Interview
데이비드 플랫, 프랜시스 찬



www.cgntv.net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 TV
T. 02-796-9800 F.02-749-6638

CONTENTS

2013 겨울호 vol.3



Program

- 16 커버스토리**
〈힐링유〉 MC 정태우·이성혜
- 20 현장스케치**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 24 제작후기**
〈나는야! 주의 어린이〉 PD 민정환
- 26 CGN 스페셜**
크리스천의 자기표현과 호감의 법칙
김경호 이미지 메이킹 센터 대표
- 28 CGN 초이스**
테마 다큐멘터리 / 시청방법안내

Mission

- 02 프롤로그**
당신이 없었다면
- 04 특별대담**
데이비드 플랫, 프랜시스 찬 목사
- 08 CGN 스토리**
2013년 발자취
- 12 선교지의 아침**
카자흐스탄 박은곤 선교사

News

- 30 CGN 뉴스·해외**
미주, 일본 지사 / 대만, 태국, 아랍 제작센터
- 32 CGN 뉴스·국내**
CGNTV 국내 주요소식
- 34 편성표**
- 36 후원안내**

Support

- 14 후원인 인터뷰**
보아스 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

Magazine CGN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3년 12월 14일 (통권 제3호) /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발행인 이재훈 / 대표 유재건 /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 기획 CGNTV 홍보팀 / 진행·편집 정원이 조인애 / 글 조인애 / 사진 엄기원, 조대우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당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그리며)

당신이 창조했기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날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기록하기에
우리는 죄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신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최상의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당신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왔기에
우리는 당신의 명예를 매는 것만이
참된 자유의 길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행했기에
우리는 이웃이 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했기에
우리는 참는 것만이
참된 기다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리며)

당신이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당신의 증인되는 것이
세상을 이길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영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당신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능력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묵시와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시작노트 | 하나님으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가 돼주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려보았습니다. 죄의 바다에서 벗어나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이 참된 자유임을 알려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CGNTV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됨의 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삶

데이비드 플랫

David Platt



CGNTV가 단독으로 '래디컬(Radical)' '래디컬투게더(Radical Together)' '팔로우 미(Follow Me)'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를 만났다. 플랫 목사는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있는 브룩힐즈교회(The Church at Brook Hills)를 담임하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좇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가능한지 삶 속에서 증명하라고 선포해왔다. 모든 꿈과 계획, 열정을 쏟아 부을 만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역설해왔다.

내한에 앞서 지난 10월 3~4일 일본CGNTV 개국 7주년 기념 '히즈 제너레이션(His Generation)' 차세대 콘퍼런스의 주강사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일본CGNTV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 CGNTV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격한 CGNTV는 일본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는데 모든 사역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고 있었

지요. 이러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저는 이런 동역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때까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플랫 목사님은 많은 강연과 설교, 장시간의 성경공부 인도 등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요.

»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도 피곤할 때도 말씀 증거만큼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방문해 며칠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매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국 집회에서는 12시간씩 연속으로 강의하진 않았으니 훨씬 쉽습니다(웃음).

브룩힐즈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 브룩힐즈교회는 도시 외곽 부촌에 위치하고 있고 초대형교회(떼가 처치)입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쉬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저희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즈니스 방법까지 완전히 바꾼 기업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영역에서 탁월한 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흥분되고 행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자를 훈련시키시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 제가 쓰고 표현했던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선포한 말씀이 맞지만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싶진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 자신의 집을 팔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난 선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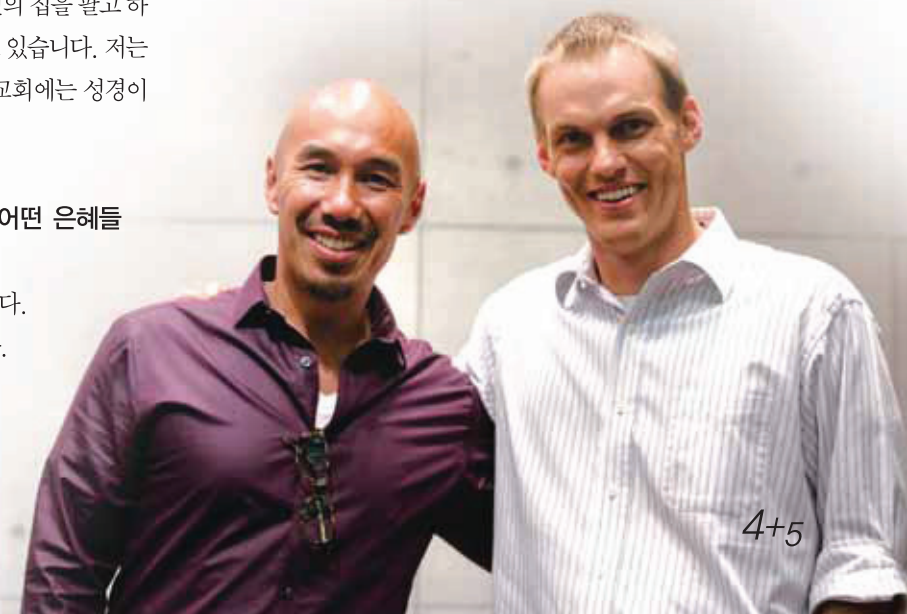
목사님이 말하는 래디컬 실험은 무엇이며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요.

» 로베르토와 물레사라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즈니스맨, 한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온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라는 설교

를 듣고, 비즈니스맨과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고, 주위의 반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치'를 알았고 결정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또 다른 예로, 노후를 아내와 편안히 살고 싶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후를 여가를 즐기는데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바쁜 삶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GNTV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복과 재물,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삶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 소망은 CGNTV 시청자 모두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교회 안팎은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자 됨의 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

● 프랜시스 찬

Francis Chan



사역의 중심에 제자훈련을 두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할 때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신들의 자녀, 친구들까지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바랐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직장까지 저를 초대해 직장 동료들도 전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저만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제 역할은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군대의 장군처럼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군인들이

장군 혼자 나와 전투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에 일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유익한 것을 떠나보내는 게 '제자 됨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목회자로서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 가장 어려운 결정은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는 1994년 코너스톤교회(Cornerstone Community Church)를 개척해 성도 2000여 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뒤 2010년 4월 18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회에서 사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았다. '크레이지 러브(Crazy Love)' '지옥은 없다?(Erasing Hell)' '제자 제공(Multiply)' 등을 펴낸 찬 목사가 지난 10월 9~11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부흥축제 주강사로 내한했다. CGNTV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찬 목사와 만났다.

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주를 위해 강해지길 원했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성장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 만팔이 12살 때 저와 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정말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상심이 컸습니다. 수많은 날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 아이는 거짓말 하는 아이가 되지 않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길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에겐 그때가 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 제 딸의 모든 영역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멋진 하나님의 숙녀로 자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함께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차세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전하십시오.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본보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본을 보이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있다면.

» 어려운 질문인데요(웃음). 위대한 '대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선교지로 한 걸음 더

'세상을 섬기는 방송' 그 한 해

CGNTV의 사역이 어느덧 2013년의 행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상을 섬기는 방송'을 모토로 걸어온 한 해, CGNTV는 365일 24시간, 어김없이 영적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많은 이들의 기도와 후원을 밑거름으로 대내외 사역들을 펼치며 여러 모양으로 국내외 선교지에 손을 뻗었다. 그 섬김은 지구촌 곳곳에 어떤 온기를 남겼을까? 'Magazine CGN'은 새해를 앞두고 2013년의 주요 족적들을 돌아봤다.



1 선교의 비전을 공고히

CGNTV 선교 헌신자 선발... 운영위원회 활동 활발

2013년 개국 8주년을 맞은 CGNTV는 선교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를 보냈다. 지난 3월 29일 개국 8주년을 맞아 사내 '선교 헌신자'를 선발했다. 이는 CGNTV 직원들 중 자원을 받아 훈련을 거쳐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총 4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2014년 9월 각각 자원하는 선교지로 파송된다. '선교 헌신자 선발'은 매년 이뤄질 것이다. 2014년 프로그램도 곧 공지될 예정이다.

CGNTV 운영위원회도 2013년 보다 강화되어 CGNTV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주)미진솔텍 회장 정상건 장로를 신입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위원수가 기존 50명에서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CGNTV를 위해 더욱 협력하는 한 해를 보냈다. 지난 10월 6일에는 CGNTV 정기후원행사를 마련했고, 11월 26일에는 CGNTV 후원을 위한 심수봉 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일본 군마 러브소나타에 참석한 후, 일본교회들을 방문해 직접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며 미디어 선교 현장을 몸소 체험했다.



2 선교를 위한 감동 프로그램

선교지를 위한 영상 콘텐츠... 개편 신규 프로그램 눈길

2



CGNTV는 선교지의 영적 필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영적 콘텐츠를 강화했다. 월 평균 말씀 강해 367편, 예배, 세미나 등이 각각 108편, 117편 방송됐고, 108편에 달하는 다양한 큐티 프로그램들이 선교지의 아침과 함께 했다. 또한 선교를 위한 의미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도 월 평균 315편 방송됐다. 특히 봄·가을 개편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다. 토크콘서트 <힐링유>,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맞춤특강 나침반>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등이 그것.



<힐링유>는 많은 크리스천 문화 예술인들이 출연해 영감 있는 무대와 진솔한 이야기를 선보였고, <유재건의...>는 굴지의 크리스천 CEO들이 복음으로 세워가는 기업정신을 전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심어주었다. 어린이 프로그램 <나는야!...>는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돕고, 국내외 주일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들을 담았고, <나침반>은 흥미로운 주제별 강의로 시선을 끌었다. <최신애의...>는 가을 개편과 함께 시즌2로 등장해 행복한 식탁을 채우는 건강한 음식들을 보여주었다.

3 생생한 은혜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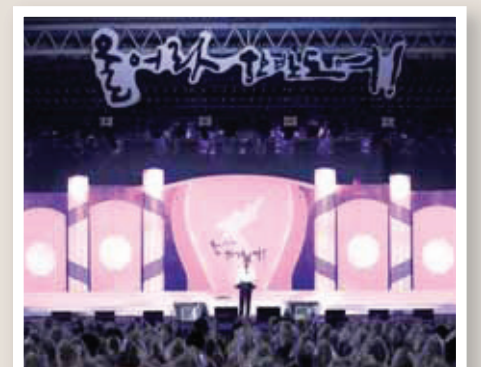
다큐 <은혜의 강...> <더 메시지>, <울어라 한반도> 등 생중계

3

CGNTV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특집 및 생중계 프로그램들이 지구촌 곳곳에 감동을 전했다. 개국 8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은혜의 강 아마존>은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열대 밀림 아마존을 찾아가 그곳에서도 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풍경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다. 고(故) 하용조 목사 2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더 메시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 목사의 울림있는 메시지들을 되짚어 깊은 감동을 전했다.

여름에는 의미있는 집회들을 생중계하며 더욱 은혜의 열기를 높였다. 6월 20일부터 22일에는 1만 5000명 군중들이 모이는 구국 기도회 현장을, 7월 4일에는 임진각 하늘에 울려 퍼진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집회 <울어라 한반도여>를 방송하며 지구촌 곳곳과 함께 했다.

이밖에 지난 10월에는 2013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를 방영했다. 사흘간 다양한 주제 강의를 선보인 이번 집회는 미 교계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프랜시스 채와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가 주강사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GN 후원자들의 숨은 영적 파워

후원자 2만여 명... 정기후원 행사서 3849명 약정

4

운영위원회와 함께 CGN TV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은 2만여 명 CGN TV의 후원자들이다. 소명에 따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그들의 숨은 영적 파워는 CGN TV의 영성과 방송사역에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진행된 정기 후원 약정행사에서는 총 3849명이 신규로 후원하거나 후원금을 증액하기로 서약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서울노보텔엠배서더호텔에서는 'CGN TV 후원을 위한 심수봉 콘서트'가 열렸다. 집사인 심수봉 씨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존 후원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크리스천 기업인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날 심 씨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참석자들에게 CGN TV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했다.



생활 속으로 보다 가까이

CGN라이브 앱, 유튜브 채널 오픈... 제1기 모니터단 선발

5



CGN TV는 이러한 사역들에 힘쓰는 한편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대내외적인 창구를 넓히는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4월 초 인도 나갈랜드 지역 기독교 방송국(Highland Dawn Media) 관계자 3명이 CGN TV를 방문, 연수를 받기도 했다. 그들은 CGN TV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방송제작, 편집, 방송국 운영, 후원모델 개발, 방송선교사의 사명 등을 전수받았다.

이밖에 CGN TV는 콘텐츠 전략팀을 세워 라이브 앱, 유튜브브나 팟 캐스트 등 파급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큐티, 말씀, 집회, 공연 등이 테마별로 검색 가능하다.

지난 11월 6일에는 제1기 CGN TV 모니터단을 선발했고, 향후 CGN TV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계간지 Magazine CGN 첫 호가 지난 여름 발행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CGN TV의 소식과 사역 저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방침이다.

해외 제작센터 선교지와 연합

미주, 일본 현지와 활발한 네트워크, 적합한 프로그램 방송
2014년 9월 인도네시아CGN TV 개국 예정

6



해외 제작센터들도 현지와 호흡하며 의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올 한 해 순차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미주CGN TV는 과테말라 비전신학교에서 제작된 2년제 24과목의 신학강좌를 방송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중남미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개국 8주년 기념 특별 대담 프로그램 <미주 목회자를 만나다>를 방송해 미주 지역 유명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현지인들에게 생생하게 전했다. 이밖에 지난 11월 15일에는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CGN TV 사역을 위한 자체 후원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개국 7주년을 맞은 일본CGN TV는 2013년, '차세대 양성', '목회자 업그레이드', '전도'를 목표로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이를 위해 현지 무목교회에 CGN TV 안

테나를 지원했고 차세대 콘퍼런스 <His Generation> 등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로 18회 차를 맞은 대단위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가 5월 오키나와, 11월 군마에서 이어졌고, 지난 6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과 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우쭈쿠시마(아름다운 섬) 후쿠시마 After 311> 등이 방영됐다.

이밖에 중문, 아랍, 태국CGN TV가 현지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선교 사역을 이어나갔다. 한편 CGN TV는 2014년 9월 인도네시아CGN TV 개국을 계획하고, 올 한해 구체적인 현지 탐방에 들어갔다.



2014년 이어질 CGN TV의 선교 지도

7

전 세계 선교지에 달려있는 CGN 위성 안테나는 2013년 현재, 6800여 대이다. 이는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약 2만4742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다. 한국 선교사 4명당 1명이 CGN TV를 통해 영적 충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등 170여 개국에서 위성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적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일본 CGN TV의 경우에는 미디어 선교의 현지화와 교회연합의 이정표를 세웠다. 일본 전국 47개 도현의 교회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2013년 이러한 CGN TV의 선교 지도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오지 선교 20년, 하나님께서 보내신 CGNTV로 도전과 은혜, 그리고 후원의 기회가”

국내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지금도 땅 끝 이름 모를 오지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다. 언어, 생활환경, 문화적 차이는 물론 영적 탄압에 이르기까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소명을 감당한다. 서부 카자흐스탄 우랄스크에서 사역중인 박은곤 선교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1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이다. 120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국가이기도 하다. 그중 박 선교사가 사역중인 우랄스크 지역은 남한 2개 도시 크기로, 중심 도시 알마타에서 직항로로 2000km 이상을 움직여야 할 만큼 외딴 곳이다. 또한 그곳은 계급 등을 이유로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홀대를 받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도 보기 힘든 곳이다.

박 선교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처음 출석할 무렵, 유독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중 인도로 파송됐던 한 선교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주린 배를 물로 채우기 위해 강으로 몸을 숙이다 힘이 없어 빠져 죽는 사람이 수도룩하다”라는 말을 늘 잊지 못했다. 그런 선배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그가 사역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박 선교사는 199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 러시아어를 배워 평신도 선교사로서 캠퍼스 사역에 일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지역 많은 영혼들을 보면

1. 박은곤 선교사의 가족. 왼쪽부터 현지인 아내 조 마리나, 박 선교사, 자녀 박 안드레이와 박 마리아.
2. 2009년 착수한 우랄스크장로교회 건축현장
3. 2013년 완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본 성전은 CGNTV 시청자의 후원금으로 건축됐다.
4. 교회 성도 파릿(37)형제. 2세 때부터 신체 성장이 멈췄다. 박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

서 마음을 바꾸게 됐다.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뒤, 우랄스크 장로교회를 개척했고, 이곳에 터를 잡고 20년 쯤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현지에서 아내를 만나 슬하에 두 아이 박 마리아(14), 박 안드레이(5)도 두고 있다.

그의 사역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가에서도 소외받는 그 지역 주민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친구가 돼준다. 그의 교회에는 2살 때부터 몸의 성장이 멈춘 파릿(37) 형제가 출석 중이다. 삶이 절망스러웠던 파릿은 박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사랑을 받으며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다. 파릿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의 변화가 생겼고 삶에 의욕과 기쁨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박 선교사의 이런 크고 작은 은혜의 사역 모습은 2012년 CGNTV 프로그램 <독수리 5형제>를 통해 방송되며 지구촌 곳곳 많은 시청자들에게 소개됐다. 박 선교사는 이 만남에 대해 선교사역 20년이 되는 지금,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수고와 열정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다”며 “선교 사역을 위해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방송은 그의 사역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 방송 당시, 그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건축 중이었다. 그들은 그간, 여름에는 6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4



2



3

40도까지 내려가는 이곳 기온을 견디며, 12평 작은 방에서 십여년간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이 중도에 중단됐고, 건설 인부들이 교회 집기까지 가져가는 일이 생겼다.

이 소식이 <독수리 5형제>를 통해 방송됐고, 이 모습을 본 한 시청자가 우랄스크교회를 위해 건축 현금을 후원했다. 현재 그의 교회는 지난 여름 완공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더욱 성장하고 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성도들과 늘 기억하고 대화하며 CGNTV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감사라는 말로는 다 표현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주신 우리 주님과 후원자님, 또 수고해 준 CGNTV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현재 그가 사역 중인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과 러시아 변방에는 1000만 명 가량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 10월 이곳 종교법이 개정된 이후, 1000여 개였던 개신교 교회가 350여 개로 줄었고, 반면 이단 종파들은 늘어났다. 7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선교사 100여 명이 추방과 함께 여러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

이런 이유로 이 땅은 그에겐 제2의 삶의 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박 선교사에게 고국이 그리지 않은지 물었다. 그는 “고국은 가끔 한 번씩 갈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족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미의 생명 살리기

CGNTV 후원인 보아스 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터전 또한 이미 작은 선교지인 경우가 많다. 선교하는 삶에 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CGNTV 후원인 보아스 이비인후과 오재국 원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의사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방면에서 또 다른 의미의 생명 살리기에 바쁘다. 보아스 이비인후과 약수동 본원 그의 진료실에서 그의 '생활선교'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보아스 이비인후과는 병원의 핵심가치로 '바른 진료', '친절한 진료', '꾸준한 연구와 공부', '지속적인 봉사와 선교', '멈추지 않는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들은 의례적인 구호가 아닌 병원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다.

오 원장은 "바른 진료로 환자에게 건강과 신뢰를 주고, 친절한 진료로 편안함을 선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주는 병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진심은 환자들에게 어필됐다. 개원 후 지난 10년 간, 간호사 2명으로 시작했던 병원이 현재 의사 세 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스태프가 꾸러가는 규모로 성장했다. 환자들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

오 원장은 이런 성장의 바로미터로 CGNTV 후원을 꼽고 있다. 그는 병원을 개원한 이후 매해 기념일마다 개원 년 수에 맞춰선 교지에 CGNTV 안테나를 후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9개를 지원했다. 그는 "병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고 싶다"며 "후원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병원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는 예배 중 CGNTV는 사이버교회라는 고(故)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그는 증조부께서 영남지역에 33개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남다른 끌림이 있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자

그는 현재 '보아스 이비인후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본 네트워크는 오 원장의 선후배로 구성된 지역별 7개의 보아스 이비인후과 모임이다. 이를 처음 제안한 오 원장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하자'라는 뜻으로 이 모임을 시작했다. 기존에 있던 병원들도 이름을 '보아스'로 바꾸고 그와 뜻을 같이 했다.

오 원장은 "여러 명이 함께 모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진료의 노하우도 공유하고, 힘을 모아 여러 가지 섬김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

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고백했다.

그가 군의관으로 있던 시절, 섬 노인들에게 귀지를 파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우연히 친구의 도움이 보태져 그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게 된 일화도 있다. 그는 보청기를 끼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노인들을 보며 보청기센터도 구상하게 됐다. 당시 이 일은 공중보건의사업단에서 '올해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상을 받기도 했다.

보아스 네트워크는 현재 CGNTV는 물론 독거노인 난방,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기독교적으로 인도하는 '스쿨임팩트', '충주 성심학교' 등을 돕고 있다.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보아스 어린이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신을 놓을 때마다 돈이 적립된다. 세 명에게 백신을 놓으면 아프리카 어린이 한 명에게 백신을 놓아줄 수 있게 되는 운동이다.

영적인 힘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함께 모여 공부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보아스 네트워크의 핵심 사업이다. 오 원장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물론 기존의 지식도 꺼내 쓰려면 계속 자극이 들어와야 한다"며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그가 CGNTV를 후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서도 계속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한다"며, "CGNTV를 통해 영적인 소스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운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환자를 맡고 있는 그의 병원에서는 간간이 복음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 흘러나온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곡은 병원의 주제곡이기도 하다. 오 원장 개인은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가 좋아 복음송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좋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그는 "인터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기억해보라 하신 것 같다"며, "감사함이 많아서 간증이 많다"고 고백했다. '축복의 종착역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그는 오늘도 찾아오는 환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병원을 꿈꾸고 있다.

힐링을 위한 새로운 초청

<힐링유>의 새로운 MC 정태우·이성혜

배우 정태우와 2011년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가 토크콘서트 <힐링유>의 새로운 MC로 무대에 섰다. 배우와 미의 사절의 만남, 진행자로는 다소 생경할 듯하다. 2014년 새로운 <힐링유>를 빚어갈 두 사람을 만나,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공정의 마음으로 어디서든 예배자로

배우 정태우

정태우는 지난 6월 제대한 이후, <힐링유>와 연극무대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전문 진행자는 아니지만 <힐링유> 초창기 때부터 MC로 거론됐던 인물. 크리스천이기에 그 또한 이 무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과 맞물려 서지 못했고, 2014년 새해를 앞두고 힐링 마이크를 넘겨받게 됐다.

그가 이 무대에서 정한 자신의 역할은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노래, 연주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자신도 마음을 오픈하고 출연자, 시청자, 방청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는 모두의 힐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정태우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서는 지난 4년 간 남다른 시간을 보냈다. 2009년 결혼, 2010년 출산, 2011년 군대까지 배우 정태우에서 남편, 아빠, 군인으로 다양한 이름표를 덧달았다. 그 시간들이 그에게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다.

어린 선임병들과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전역 후 생활도 부담됐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주어진 상황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 애쓰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추억했다.

그는 모태신앙인이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줄곧 그대로 믿어 왔다. 특별히 호기심이나 궁금증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 중 어머니만 신앙이 있어서 어린 시절 그는 교회에 가려면 할머니 몰래 가야 했다. 그의 할머니는 방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생일에는 그 부적들을 태워 그에게 갈아 먹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가족이 분가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키워가게 됐다. 가족 모두 성가대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성실히 했다. 지금은 그의 할머니도 신앙을 가진 상태다.

<힐링유>를 이끄는 그는 정작 어느 때 힐링을 경험할까. 그는 소통에서 힐링을 느낀다. 결혼 후 예전에 비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SNS가 요긴하게 활용된다. 그것을 통해 가까운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존경하는 목회자들이나 비슷한 환경의 크리스천 공인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에너지도 얻는다. 그리고 <힐링유> 출연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또 하나의 힐링 타임이 됐다.

“ 그가 이 무대에서 정한 자신의 역할은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노래, 연주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자신도 마음을 오픈하고 출연자, 시청자, 방청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는 모두의 힐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



그는 요즘 제자훈련 성경공부에 한창이다. 기도 제목이 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것이 전부였는데, 이를 계기로 기도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요즘 그의 기도는 '어디서나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이다. 그는 제자나 사역자라는 것에 대해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곧 사역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열린 무대 위

미스코리아 이성혜

2011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이성혜는 당시, 주최 측이 종교적 발언을 제한한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돌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랫동안 해 온 바이올린을 접고 의대에 진학한 후, 다시 미국 유명 디자인학교에 입학한 이력도 주목받았다.

그녀는 미스코리아로서 공식 일정을 밟아가며 앞서 말한 수상 소감과 눈에 띄는 이력의 배경을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했다. 그녀가 <힐링유> 무대를 처음 밟은 것도 지난 5월, 출연자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녀는 MC로 다시 이 무대에 선 것이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했다.



MC 역할은 망설여지는 자리였지만, <힐링유>의 온기를 직접 느꼈던 터라, 진행을 결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이 무대에 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힐링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힐링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

그녀에게 힐링 타임은 매 순간이다.

미스코리아가 되고 사역의 자리에서 서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그녀에겐 가장 힐링이 됐다.

”

최근 그녀는 NGO활동과 함께 십대 아이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 자신이 십대 때 제일 방황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 각별하다. 또한 청소년 사역중인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미스코리아가 돼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간 적극 제안해왔다. 이 때문인지 그녀는 미스 서울 진이 된 후, 온누리교회 고(故) 하용조 목사로부터 "문화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며 축복기도를 받기도 했다.

그녀의 집은 5대째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다.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는 의사지만 신학을 공부한 후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그녀의 집은 신앙 색이 강했다. 가족들이 모이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고, 그녀는 수시로 성경을 암송했다. 어린 그녀에게는 이런 것들은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면서 모든 억압에서 풀어졌다고 느꼈다. 아울러 신앙생활이 소홀해졌고, 곁에 있는 친구만이 절대적인 대상이 됐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처음으로 왕따를 경험하면서 철저히 외로운 시간을 맞았다.

그때 그녀에게 떠올랐던 것이 어린 시절 외웠던 말씀들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다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됐고 자신의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입을 앞두고 꾸준히 해왔던 음악을 내려놓았다. 의대를 선택했지만 케도는 다시 수정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 너무 귀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누군가를 꾸며주는 것에 행복해 했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패션 디자인을 선택했다. 그 선택 후 그녀는 언제든 감사가 나왔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힐링 타임은 매 순간이다. 미스코리아가 되고 사역의 자리에서 서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그녀에겐 가장 큰 힐링이 됐다.

요즘 그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힐링유>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맛있고, 멋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현장스케치

'행복한 식탁'을 차리기에 분주한 경기도 용인 양지의 한 요리스튜디오. 요리연구가 최신애 권사의 스튜디오인 이곳에선 12월 둘째 주에 방송될 특별한 요리 '등갈비 고추조림'이 준비되고 있었다. 특히 이날은 지난 11월 6일 위촉된 CGNTV 제1기 모니터단들이 방문해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촬영이 진행됐다.



#01 오전 10시 30분. 스튜디오는 촬영준비에 한창이다. 요리연구가 최신애 권사와 요리하는 남자 아드리안 리가 촬영 전,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02 서울에서 오전 7시 반에 출발했던 촬영팀은 이미 스탠바이 상태. 촬영팀은 전체 촬영에 앞서 소소한 동선들을 부분 촬영한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프라이팬을 들었다 놓는다.



#03 주방 한 귀퉁이에선 최 권사를 돕는 스텝이 한창 준비에 바쁘다. 레시피에 맞춰 조미료들을 용기에 담고, 깨끗한 면 행주도 차곡차곡 접어 테이블 위해 놓아둔다.

#04 최근 위촉된 CGNTV 모니터단 중 3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CGNTV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그들은 화면 뒤 풍경이 반가운 듯 현장을 둘러보기에 바쁘다.



#05 스튜디오 한 귀퉁이 테이블에 최 권사가 준비한 고구마와 오메기떡, 면역에 좋다는 흙마늘이 놓여있다. 건강까지 생각한 그녀의 배려로 스텝들의 마음과 배가 든든했다.

#06 녹화 들어가기 직전. 최신애 권사의 기도로 촬영을 시작한다. 촬영장에 모인 모든 관계자들이 녹화 전 함께 눈을 감았다.

#07 'Cooking time!' 훈남 MC 아드리안이 경쾌한 목소리로 "Hello everyone!"을 외치고 스튜디오는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오늘의 메뉴는 '등갈비 고추조림'.



#08 12월 둘째 주에 방송될 이번 메뉴는 연말연시 손님 초대용 요리다. 첫째 주에 방송될 '닭고기 샐러드'가 에피타이저 메뉴였다면, 이번 것은 메인요리 격이다.



#09 먼저 돼지 등갈비를 손질한 후 찜통에 찐다. 건강한 레시피를 추구하는 그녀는 찜는 요리를 선호한다. 그녀는 손이 바쁜 만큼 입도 바쁘다. 메뉴 조리 이외에도 부지런히 여러 가지 요리 팁을 전해주기 위해 애쓴다.



#14 실제로 그녀는 마리아의 마음, 마르다의 손을 가지고 요리한다. 그녀는 두 사람을 초대할 적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는데, 후에 초대자의 남편에게 편지가 왔다. "음식을 대접받은 이후 아내가 더 이상 우울증 약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그녀의 음식은 '힐링'이다.



#15 요리에도 표정이 있다는 그녀. 접시에 놓인 등갈비 위에 동그란 연근 편과 작은 초록 고추를 끼워 넣는다. 한결 요리가 경쾌해진다. 그녀의 요리는 '맛있고 멋있다.'



#10 그녀의 요리 팀은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이다. 특히 방송을 보는 선교사들의 피드백은 그녀가 더욱 방송에 공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재료 구하기 어려운 선교지를 떠올리며 대체할 수 있는 이모저모를 이야기한다.



#11 그녀의 스튜디오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선물한 장소다.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은 남편과 함께 주의 일 하다 하늘나라 가는 것. 가정의 제 사장이 되어주는 남편이 그녀에겐 가장 큰 울타리다.



#16 '등갈비 고추조림' 완성. 빨간 포인세티아와 어우러져 있는 완성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12월 어느 날 있을 누군가의 행복한 식탁이 그려진다.



#17 오후 12시 경, 촬영이 끝났다. 모니터단은 두 진행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이내 테이블로 모여 행복하게 음식을 시식했다. 여기 저기 "맛있다"는 말과 함께 웃음소리가 이어진다.



#12 한창 요리가 진행되는 중. 모니터단은 고개를 들고 촬영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제작진은 소리까지 맛있는 요리를 위해 오디오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13 고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요리와 어우러지는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요리 시간과 함께 버무려지는 그녀의 삶 이야기. "피곤하고 지치면 비위가 약해져요. 남편이나 아이가 고기 음식에 큰 반응이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맛에는 거짓이 없어요. 전도하고 싶다면 먹이세요!"



#18 전 스텝들이 시식하는 중에도 최신애 권사는 손이 바쁘다. 익혀놓았던 등갈비를 또 다른 양념으로 서둘러 버무리 내놓는다. 맛있고 맛있는 음식 위에 푸짐한 마음을 더했다.



#19 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심 식사를 하기 어려운 스텝들을 위해 그녀는 밥과 함께 갖가지 밑반찬들을 내놓았다. 모니터단은 예상 밖의 그녀의 대접에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훈훈하다. 녹화가 끝난 후에도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은 계속됐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TV 주일학교'를 꿈꾸며

어린이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나는야! 주의 어린이>

“지구촌 많은 어린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꾼다.”



어린이들을 위한 'TV 주일학교'

CGNIV 시청자들은 그동안 선교사(‘독수리5형제’), 탈북자(반갑습네다), 군인(‘충성! 은혜로軍’) 등 특정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 <예수님이 좋아요>, <어린이 예배>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졌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는 이런 요청을 반영해 ‘초등학생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어린이 사역을 하는 이들에 따르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지원이 취약한 연령대는 초등학교 1~3학년이다. <나는야!...> 팀은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그들을 위한 'TV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는야!...>

어린이 종합 구성물을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한 코너 당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여러 코너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작비, 인력 보완, 후반 CG 작업 과정 등이 숙제가 된다. 또한 그 코너들을 잘 이어줄 MC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정말 '필요! 필요! 필요!'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름이 끼칠 만큼 때때로 그 필요를 채우시는 멋진 분이셨다.

먼저 제작을 위한 좋은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오래전부터 어린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왔던 장영란 작가를 만나게 돼 프로그램의 큰 틀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또 MC를 놓고 기도하던 중, <충성! 은혜로軍>(CGNIV)을 통해 알게 된 개그맨 김상태 씨가 개그우먼 허민 씨를 소개해 주었다.

MC 개그우먼 허민과의 만남

그녀는 최근 예수님을 영접한 소중한 영혼이었고, 개그콘서트를 통해 한창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해 선 더없이 좋은 진행자였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준비하고 계신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애니메이션' 제작이 문제였다. 애니메이션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외주 제작사와 계약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PD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이전부터 어린이 제작물을 만들고 있던 국제훈련원(KDM) 김성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동참해주시기로 하면서 완전한 CGNIV표 어린이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까지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것을 느꼈다.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나는야!...>는 모든 코너마다 초등학생들과 만난다. 처음엔 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아 스태프들이 애를 먹었다.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암기력도 떨어지고, 연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돼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한창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아이이지만, 제작자의 입장에서선 진정 어려운 상대들이었다.

<나는야!...>의 꿈

어느덧 <나는야!...>가 방영된 지 1년을 향해 가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가장 주안점에 두는 것은 '이것이 TV 주일학교'라는 점이다. <나는야!...>가 앞으로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선교지, 그리고 국내외 미자립 교회에 꼭 필요한 친구이자 영적양식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많은 언어로 번역돼 지구촌 많은 어린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꾼다.

크리스천의 자기표현과 호감의 법칙

자신을 잘 표현하고, 호감을 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천들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다. 참된 자기 표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CGNTV 맞춤형강 <나침반>은 김경호 이미지 메이킹 센터 대표를 통해 그 방향을 들어보았다.

이미지 메이킹의 첫 단계

참 자아 발견... 열등감을 내려놓자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단계는 참 자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자신감을 누르는 것이지요. 열등감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만들지요. 과소평가는 곧 자기 비하로, 과대평가는 자기 과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연구했지만, 결론은 열등감은 내려놓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력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괜한 열등감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도 그저 선대부터 내려온 생김새에 불과합니다. 나의 모습은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열등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만 그 굴레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지요.



좋은 표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영혼입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멋진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면, 영혼이 멋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에게 이미지 메이킹은 필수입니다.

※ 이 강의는 CGNTV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프로그램 맞춤형강 <나침반>을 통해 전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청소년이 돼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한 이점은 학교 폭력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내가 만드는 작품

“좋은 표정은 맑은 영혼에서 시작된다.”

이렇듯 열등감을 내려놓고 참 자아를 발견하면 당당해 집니다. 하지만 인상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좋은 표정이 있을 때 좋은 인상을 줍니다. 표정은 순간순간 자신이 만드는 작품이고, 때마다 상대방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표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영혼입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멋진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면, 영혼이 멋있어야 합니다.

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에게 이미지 메이킹은 필수입니다. 먼저 말 씀으로 영혼이 맑아져야 합니다.

때로 영혼을 어둡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틈새를 찾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바늘 귀 같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듯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틈새를 찾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의 표정은 얼굴 근육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 발달합니다. 표정을 만드는 얼굴 근육의 개수가 80개인데, 그중 호감을 줄 때 움직이는 근육이 17개, 거부감을 줄 때 움직이는 근육이 43개, 나머지 20개는 많이 움직이는 쪽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표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눈과 입입니다. 가장 예민한 근육들이 모여 있지요. 간혹 입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눈둘레근(안륜근)이 굳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려면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보거나 눈을 가늘게 떴다가 크게 떠보면 좋습니다.

입은 나이가 들수록 입 꼬리가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표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이미지 메이킹

영성, 전문성, 친근성, 삼성일체로...

표정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눈 뜨면 웃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선 간혹 나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표정이 웃고 있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 때도 웃으십시오. 성경 말씀에서도 자기 전에 화해하라 하셨습니다. 두 기점을 잘 지켜나간다면 차츰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좋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문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주어진 상황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는 친근성(매력도, 호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편하게 느끼고 만나고 싶어야 합니다. 그 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친근성으로 가까워지고, 좋은 영성과 전문성으로 신뢰를 줄 때 우리는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호 이미지 메이킹 센터 대표
크리스천 이미지 연구소 소장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이미지 컨설턴트 자격과정 주임교수

CGNTV 테마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소망의 불씨, 섬김

CGNTV는 연말연시를 맞아 섬김의 현장을 조명한 4편의 다큐멘터리를 엄선했다.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현장에서 소망의 불씨가 되고 있는 숨은 섬김들을 나누며 새해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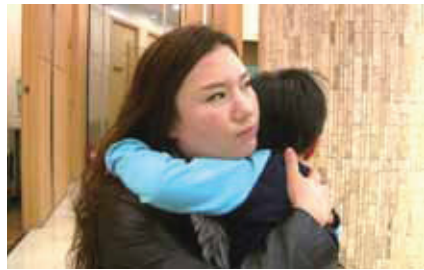
CGNTV 연말특집다큐 4부작



<친구가 되어 주세요>

2만 5000명의 탈북자들. 죽음의 사선을 넘어 새 희망을 갖고 이 땅에 터전을 잡은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외롭게 고군분투 하는 그들의 저마다의 꿈과 애환을 4부에 걸쳐 조명한다.

- ▶ **1부 <탈북 미녀 찬양씨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다>** (출연 주찬양 / 2011년 탈북/ 12월 10일 방영)
- 영어교사가 되고 싶은 23살 탈북 아가씨의 꿈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
- ▶ **2부 <디모데, 꿈을 외치다>** (출연 강디모데 / 2008년 입국 / 12월 17일 방영)
- 북한에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생활해야 했던 강디모데.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인 그의 꿈은 북한회복을 위한 미디어 선교사.
- ▶ **3부 <하늘 꿈 학교 아이들>** (12월 24일 방영)
- 2003년에 설립된 탈북청소년 1호 대안학교 '하늘 꿈 학교'. 그 속에서 펼쳐지는 60명 탈북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 ▶ **4부 <절망의 끝에서 희망으로>** (출연 전수빈 / 2007년 입국) (12월 31일 방영)
- 35세 미혼모 전수빈. 오랜 중국생활 끝에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새롭게 만난 남성과 결국 헤어지고 홀로 남았다. 아들(4세)과 함께 살아가는 탈북여성의 홀로서기.



스마일 라크로즈



세네갈 라크로즈 마을과 '블레싱 사하라'를 기도하며 이곳에 도착한 한국 아웃리치 팀의 만남을 담은 다큐멘터리. 라크로즈는 800여 명의 무슬림들이 사는 블랙아프리카 지역 중 한 곳. 아웃리치 팀은 오래 전부터 이곳을 섬기고 있는 두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 이곳에 복음을 심는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참 기쁨을 나눈다. 2012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 수상작.

※ 이 프로그램들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도토리 볶는 바리스타



주중엔 바리스타, 주일엔 목사인 이진용 목사의 가슴 따뜻한 사역 이야기. 국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경남 합천. 이진용 목사는 그곳 산골 초계면에 복음을 들고 터를 잡았다. 하지만 불교와 무속 신앙이 깊숙이 뿌리 내린 이곳은 배척과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곳에서 그는 도서관 '도토리 친구들', 카페 '도토리의 꿈'을 열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다닌다.

휴먼다큐 C

<비행천사들 날개를 퍼다>



경기도 양주 청소년 보호 관할 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그곳에는 어두웠던 과거를 벗고 새 희망을 찾아온, 소위 비행 청소년이었던 40명의 소녀들이 모여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는 그녀들의 웃음, 눈물, 희망이 담긴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24시간 그들을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았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위성안테나 설치로 국내외 170여 국에서 24시간 은혜와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국내 설치비용 : 31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CJ 헬로비전 ch.702번 (헬로TV 프리미엄 상품)
- ▶ cable & more ch.703번 (고급형, HD프리미엄형 상품)
- ▶ NIB 남인원방송 ch.702번 (D-Lux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 ※ LG U+ TV : 스마트 HD 상품, 프리미엄 상품 가입 시 시청 가능



스마트폰

모바일웹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은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웹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폰 인터넷 창에 m.cgntv.net 입력)
-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Live 방송 서비스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 팟캐스트를 통한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시, iTunes 앱 실행 → CGNTV 검색)

인터넷 www.cgntv.net

인터넷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VOD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CGNTV 해외지사 소식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CGNTV 2개 해외지사(미주, 일본), 3개 제작센터(중문, 태국, 아랍)는 현지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 센터들은 영적 콘텐츠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각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며 현지 선교 사역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 특히 각 센터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각 센터에서 보내 온 국가별 선교소식을 전한다.

미주 CGNTV

후원 감사의 밤 <드림콘서트>

케리스 크리스천 챔버 공연, 은혜 나눠

미주 CGNTV와 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후원 감사의 밤 <드림콘서트>를 마련했다.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케리스 크리스천 챔버(Charis Christian Chamber)'의 공연과 함께 진행됐다. '케리스 크리스천 챔버'는 교회와 선교, 구제단체를 후원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팀.

이날 챔버팀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후원자는 현지 관계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은혜로운 저녁이었다"고 말하고, "CGNTV 후원은 아까운 마음 없이 선뜻하게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 CGNTV

일본 차세대 부흥을 위한 행사 성황

콘퍼런스 <His Generation>, <어린이 전도 집회> 등

일본CGNTV는 지난 10월 3, 4일 개국 7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리고 차세대 콘퍼런스 <His Generation>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 예배에는 CGNTV 출연자와 시청자, 관동권 목회자, 일본 내 <러브소나타> 지역 실행 위원장들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은혜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콘퍼런스는 일본 성도 및 차세대들이 총 20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그려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 일본CGNTV는 지난 10월 26일 오사카 토요나카에서 열린 초교과 어린이 전도 집회를 방송했다.



중문 CGNTV

개국 5주년 첫 제작 자문위원회 개최

방송 선교 콘텐츠의 갈 바 논의

중문CGNTV는 개국 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첫 제작자문위원회를 열었다. 그간 중문CGNTV를 위해 협력한 대만 내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방송 선교 콘텐츠가 시대상을 잘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CGNTV가 중화권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했다.

한편 중문CGNTV는 2014년 봄, 중화권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대만은 민법 972항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법적 범주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동의하면 인정하는 제도로 변경되는 것. 현재 대만 내 교회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해 동성애자나 개정안 찬성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태국 CGNTV 방콕 제작센터

B.I.T 신학대학원 전 과정 온라인 강의로 제작

태국 크리스천 신앙 성장에 도움 기대

태국CGNTV는 최근 B.I.T(Bangkok Institute of Theology) 신학대학원과 협력해 평신도를 위한 신학대학원 과정 전체를 촬영, 온라인 강의로 제작하고 있다.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본 강좌는 총 90강. 평신도를 위한 체계적인 성경공부나 신학 과정이 전무한 태국에서 현지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작된 모든 영상은 CGNTV THAI 홈페이지와 CGNTV THAI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 누구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아랍 CGNTV 아부다비 제작센터

로고스 호프 호 사역 다큐멘터리 제작

이슬람 국가 내 사역 모습 담아

아랍CGNTV는 지난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아부다비 미나 항구, 두바이, 라스알 카이마에 정착한 OM국제선교단체의 새 선교선 로고스 호프 호의 사역을 카메라에 담았다. 로고스 호프 호는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배로 350명의 선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규모 선박. 6일 오프닝 행사를 가진 로고스 호프 호는 이곳에서 3주간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아랍CGNTV는 그들이 향해하는 모습과 함께 종교적, 문화적 갈등을 이겨내고 복음과 비전을 위해 항해하는 그들의 사역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다.



CGNTV 국내소식

CGNTV 후원을 위한 심수봉 콘서트 성료

심수봉 집사가 CGNTV를 위해 재능기부에 나섰다. 지난 11월 26일 노보텔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CGNTV 후원을 위한 심수봉 콘서트에 220여 명의 크리스천 기업인과 여러 교회 리더십이 참석했다. 심 집사는 간증과 함께 '백만송이 장미'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열창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CGNTV 설립 정신에 대해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CGN 직원들의 헌신에 감탄했다"며 "더 좋은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CGNTV 후원에 적극 동참

CGNTV 정기후원자 수가 2만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6일 온누리교회 창립기념 주일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CGNTV 정기후원 약정 행사에서 3849명의 교인들이 신규 후원약정을 하거나 후원금 증액을 약속했다. CGNTV 후원은 홈페이지(www.cgntv.net)나 전화(02-796-2243)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CGNTV는 10월 13일에는 서울 충신교회(이전호 목사)에서 CGNTV의 사역 비전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재미 원로목사의 후원금 쾌척

올해로 구순을 맞은 재미 노 목회자 한은우 목사가 지난 10월 24일 자신이 속한 겨자씨선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CGNTV를 방문, 후원금 미화 5000달러, 한화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 목사는 "CGNTV 설립자인 고(故) 하용조 목사의 설교에 매료됐었다"면서 "CGNTV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영혼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969년 서울동산교회를 개척한 한 목사는 국내 20개, 해외 6개 교회를 세웠다.



CGNTV 운영위원회 아웃리치

정상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운영위원이 지난 11월 12~15일 일본 군마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운영위원들은 뉴라이프그리스도교회, 시부카와그리스도교회, 이카호중앙교회에서 일본 크리스천들과 교제하며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고 방송사역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뉴라이프그리스도교회는 CGNTV 위성안테나가 처음으로 설치된 곳이다. 운영위원들은 13~14일 군마리브스나타에 참여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재확인했다.



CGNTV 라이브 앱 출시, 서비스 확대

'CGNTV 라이브 앱'이 지난 11월 새롭게 출시됐다. CGNTV의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모바일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된 것. 기존 출시 앱에서 프로그램 언어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됐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편성표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3G/LTE나 Wi-Fi로 접속 환경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다.



CGNTV 전 직원 워크숍

CGNTV 전 직원 워크숍이 지난 12월 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각 팀별로 2013년을 결산하고 2014년 새해의 계획을 발표한 자리. 전 직원이 같은 비전 아래, 각 팀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CGNTV는 2014년 선교, 복음, 섬김을 위한 콘텐츠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니어 선교 캠페인 프로그램 및 전 직원이 직접 선교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TV
편성
프로그램

CGNTV Program

sun

일

04:5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6:30 생명의 삶
06:50 주일예배(1부)(LIVE)
08:3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9:00 주일예배(2부)(LIVE)
10:40 토크콘서트 힐링유
11:20 새벽나라
11:30 주일예배(3부)(LIVE)

13:10 미니콘서트 심
13:20 어린이예배
13:50 주일예배(4부)(LIVE)
15:5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6:00 ENGLISH WORSHIP SERVICE
17:0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17:3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

18:1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19:00 열린새신자예배(LIVE)
20:3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3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
22:10 주일예배
23:5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mon

월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파워타임 - 서정오 목사
07:40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기초이론(영어)
08:20 클래식 갤러리
09:00 파워타임 - 강준민 목사
09:40 토크콘서트 힐링유
10:20 파워타임 - 박은조 목사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4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12:0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영어)
13: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00 비전타임 - 김형준 목사
14:40 비전타임 - 양춘길 목사
15:40 비전타임 - 박성민 목사
16:2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6:50 새벽나라
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30 햇볕회 강좌

19:00 비전타임 - 이규현 목사
19: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0:2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22:50 비전타임 - 김병삼 목사
23:30 오크힐스처치 스페셜

tue

화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비전타임 - 이재훈 목사
07:00 파워타임 - 권성수 목사
07:40 청년 바이블 아카데미
(인도네시아어)
08:20 독수리 5형제
09:00 파워타임 - 라준석 목사
09:40 반갑습네다
10:2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40 예수님의 7가지 성품

12:00 파워타임 - 홍정길 목사(영어)
13:00 충성! 은혜로軍
14:0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
14:40 비전타임 - 박성근 목사
15:40 비전타임 - 김병삼 목사
16:20 톨리안 차비진의 예수
16:50 새벽나라
17:00 예수님이 좋아요
17:30 류모세 선교사의 하루에
완주하는 성경역사산책

19:00 비전타임 - 진재혁 목사
19:40 반갑습네다
20: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 강해(영어)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화요성령집회 Holy Impact
23:30 크레이그 그로셀의 엘리사

wed

수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
07:00 파워타임 - 이영훈 목사(영어)
07:40 햇볕 트리니티 성경강좌
(러시아어)
08:2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09:0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
09: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30 수요일여성예배(LIVE)

12:0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
13: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14:00 비전타임 - 지형은 목사
14:40 비전타임 - 권준 목사
15:40 비전타임 - 정현구 목사
16:20 힐송 여성 콘퍼런스
16:50 새벽나라
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30 이스라엘 회복 기도성회

19:00 비전타임 - 이재훈 목사
19: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0:20 파워타임 - 강준민 목사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3:3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thu

목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파워타임 - 김창근 목사
07:40 Why Mission?(스페인어)
08:20 브라보! 마이 라이프(시즌2)
09:00 비전타임 - 권혁빈 목사
09:40 SALT & LIGHT
10:2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2:00 파워타임 - 이동원 목사(영어)
13:0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14:00 비전타임 - 장덕순 목사
14:40 비전타임 - 정인수 목사
15:20 예수님의 7가지 성품
15:4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
16:20 길 위의 전도자 : 유럽
16:50 새벽나라
17:00 예수님이 좋아요
17:30 과학기술선교학교

19:00 비전타임 - 김승욱 목사
19:40 SALT & LIGHT
20:20 파워타임 - 이기훈 목사
2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21:5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3:3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fri

금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파워타임 - 홍성욱 목사
07:40 성경대학(인도네시아어)
08:2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09:00 파워타임 - 이기훈 목사
09:40 충성! 은혜로軍
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40 예수님의 7가지 성품

12: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
13:00 토크콘서트 힐링유
13:40 비전타임 - 김양재 목사
14:40 비전타임 - 마크 최 목사
15:40 파워타임 - 이영훈 목사(영어)
16:20 웨인 코데이로의 알로하 주님
16:50 새벽나라
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30 김세윤 박사의 청의와 성화

19:00 비전타임 - 박완철 목사
19:40 충성! 은혜로軍
20:2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
21:00 류모세 선교사의 하루에
완주하는 성경역사산책
21: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3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0:00 제이머스 워십

sat

토

05:00 새벽기도회(LIVE)
05:40 CGN WORLD REPORT
06:00 생명의 삶
06:2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
07:00 파워타임 - 김인중 목사
07:40 햇볕회 강좌
08:30 SALT & LIGHT
09:1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
09:5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0:20 파워타임 - 이재철 목사
11:00 2013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 주제강의

12:00 충성! 은혜로軍
12:4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3:20 브라보! 마이 라이프
14:0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
14:40 비전타임 - 이규현 목사
15:40 비전타임 - 진재혁 목사
16:20 예수님이 좋아요
16:4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7:40 젊은이를 위한 예배

19: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
19:40 독수리 5형제
20:20 토크콘서트 힐링유
21: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21:50 반갑습네다
23:30 길 위의 전도자 : 유럽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되어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후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GNTV 방송사역 후원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정보를 입력하시면 금융결제원 등록을 거쳐 선택하신
출금일(매달 5일, 15일, 25일 중 택일)에 자동이체 후원이 시작됩니다.
- (2) 은행 자동이체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 외환은행 630-004878-302
-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 NH농협 301-0072-3639-01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2) 일시후원

- (1) 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 를 클릭한 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ARS 전화후원 : 060-700-1660 (한 통화에 5천원)
- (3) 후원계좌번호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후원문의: 02-796-2243)

3) 기도후원

CGNTV가족의 일원으로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 모임 시간, 장소**
- ❖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세미나실

2. 드림온 캠페인-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본 후원은 세계 9개 권역 170여 개 나라 선교사들에게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
는 캠페인입니다. 선교지를 직접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지역 -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1) 인터넷 신청 : 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 을 클릭하신 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좌입금 :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문의: 02-796-1118

CGNTV 실행위원회

김종건(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성
배종수 이광형 이인용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성목 김성진 김영길 김 인
김장렬 김정은 김정훈 김종수 김중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은영 박찬구
박현규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인선 유주희 유철호
유 형 윤덕순 윤원식 윤현진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병하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장수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병균 정영기 정용주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훈학 추말자 하성기 한형식
함승아 홍혜실 황상윤



외로운 선교지에
CGNTV를 선물해주세요



<네팔 조 경 근 선교사 - 가운데>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그리워지는 고국,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CGNTV는 큰 힘이 됩니다. www.cgntv.net



<선교지에 CGNTV를 선물하는 방법>

- 인터넷. give.cgntv.net ⇨ 드림온 캠페인 클릭 ⇨ 후원 참여하기 클릭
- 전화 문의. 02-796-1118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